

한국의 반기업 정서, 무엇이 문제인가?

한정화(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한국사회가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까지 오게 된 데는 기업의 역할이 지대했다. 최근에도 한국 경제가 어렵고 내수경기의 침체와 함께 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반기업 정서가 심각하다. 기업에 대한 이중감정이 존재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어떤 기업인들은 ‘반기업 정서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기업 정서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과 관련된 불법적, 비윤리적 사건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기 어렵다. 최근에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아들인 이재용 상무에 대한 변칙편법 증여과정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일반인들의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두산그룹, 현대그룹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기업들도 부정적 인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반기업 정서는 자업자득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언론에서도 기업을 옹호하는 논조와 기업을 비판하는 논조가 함께 나오고 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우선 반기업 정서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는 사회 심리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있다.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액센추어가 2001년 세계 22개국 880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각국의 반기업 정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CEO의 70%가 ‘국민들 사이에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22개국 CEO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대한 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2003년 12월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38.2로 낙제 수준이었다(동아일보, 2004년 4월 5일자).

한국사회의 반기업 정서는 반재벌 정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재벌 정서가 형성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경유착의 역사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 볼 때, 한국 사회는 정치권력과 대기업의 역학관계가 사회지배의 중요한 축을 차지했다. 민주화 이전 정치권력은 독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시혜속에서 재벌기업이 발전했고 재벌기업은 정치권력을 지원했다는 원죄가 반기업 정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정치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재벌은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재벌이 권력층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해왔으며, 절정은 이룬 것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과감한 선언을 했지만, 김현철의 정치적 스캔들로 인하여 이미지가 퇴색하고 말았다. 그 후 두 차례의 대선과정에서도 거액의 선거자금 지원이 폭로되면서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높은 이유는 정경유착이 부정부패와 사회불

공정성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둘째, 재벌기업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남용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기업은 막강한 권력집단이다.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해 뒷받침 될 때 이러한 현실은 매우 심각해진다. 이러한 권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사실이 많다. 소비자, 노동자, 또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조차 이러한 경험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이것이 언론매체를 통해 노출되면서 반기업 정서를 강화시켜 왔다.

반재벌 정서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는 원인이 있다. 첫째,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때문이다. 그간 여러 가지 사건들은 통해 일반인들에게 기업인들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각인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은 차치하고서라도 최근 대선과정을 둘러싼 거액의 정치자금 제공, 형제간의 비리폭로 공방전, 불법적 상속, 개인적 스캔들 등이 얽혀서 한군데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이다. 반기업가 심리는 반부자 심리와 연결되어 있다.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부의 형성에 성공한 소수와 다수의 실패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부자들은 부를 과시하면서 윤택한 삶을 누리는데 반해, 빈곤층이나 서민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돈이 많은 것과 기업을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시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둘째, 반자본주의 심리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원초적 반감이 있다. 자본의 논리는 많은 경우 인간의 논리와 배치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적 사정의 특수성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기 쉽다.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기업도 효율성 중심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많은 경우 조직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자본이 가진 불평등성, 불공정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자본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반감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수년간 반기업정서가 강화된 것은 상황의 특수성 때문이다. 정치사회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민의식이 향상되었고, 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감시기능이 강화되었다. 과거 기업의 부정적 행태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들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노출되고,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됨에 따라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언론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집중 보도하는 성향도 반기업 정서를 증폭시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IMF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다수의 대기업이 도산하면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회복과정에서도 천문학적 단위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이 부담은 국민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그간 형성되었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내지 우호적 감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한국의 반기업 정서는 반재벌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반기업가 정서나 반자본주의 심리와 얽혀 있다. 반기업 정서를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이면에는 반재벌 정서를 몰타기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즉, 반기업 정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반재벌 정서의 문제를 감추고자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한국 사회에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업에 대해 비우호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은 기업발전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반기업정서는 기업과 사회와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기업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도 피해를 입게 된다. 기업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유연성을 가진 조직이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으면 정치권력은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법안을 만들게 된다. 규제가 많으면 많

을수록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기업은 규제를 준수하려다 보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준법성을 감시하기 위해 정부기구의 확대가 필요하고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규제가 많다보면 공무원도 부정부패에 유혹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반기업정서는 기업인의 사회적 존경욕구를 좌절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생리적, 물질적 욕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충족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아지게 된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으면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업의욕이 저하되고 기업이 정신이 쇠퇴하게 될 우려가 높다. 우수한 인력을 기업이 집단에 들어오게 하기가 힘들어진다.

반기업정서는 과격한 노동운동을 정당화시켜준다.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은 기업에 대해 불합리하고 무리한 노조의 요구를 정당화시켜 준다. 노조는 기업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결국 불신과 갈등의 증폭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사회불안정 요인이 된다.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경영의 윤리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반기업 정서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 내지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다. 스스로 윤리성을 높여야만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기업 스스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에 옮겨야 한다. 윤리경영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한 윤리수준에 이를 수 없다.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시대적으로도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권력의 과감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권력에 의해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서 정치헌금을 강요하거나, 이권을 제공하는 검은 거래가 사라져야 한다. 기업도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최근 수년간 이 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정치권력이 기업을 협박하거나 정치권력을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행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않고는 반기업 정서는 해소되기 힘들다.

셋째, 기업권력의 남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적 힘의 과시를 자제해야 한다. 민주화의 시대를 맞아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같은 권력남용 현상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방적 교섭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권력남용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자기통제가 필요하다.

넷째, 반자본주의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은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자본주의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하며 초중고교 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방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살아 있는 현장교육을 시키도록 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명성과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사회공헌활동을 잘 못 이해하면 기업의 부정적인 면을 호도하려는 술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 활동이 이기적 동기에서 시작되었다하더라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기업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 물질적인 기부활동 만이 아닌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하면 효과를 증

대시킬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반기업 정서는 오랜 기간동안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시행착오의 과정이 불가피한 점도 있다. 그러나 기업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면 천민자본주의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바람직한 선진사회로 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